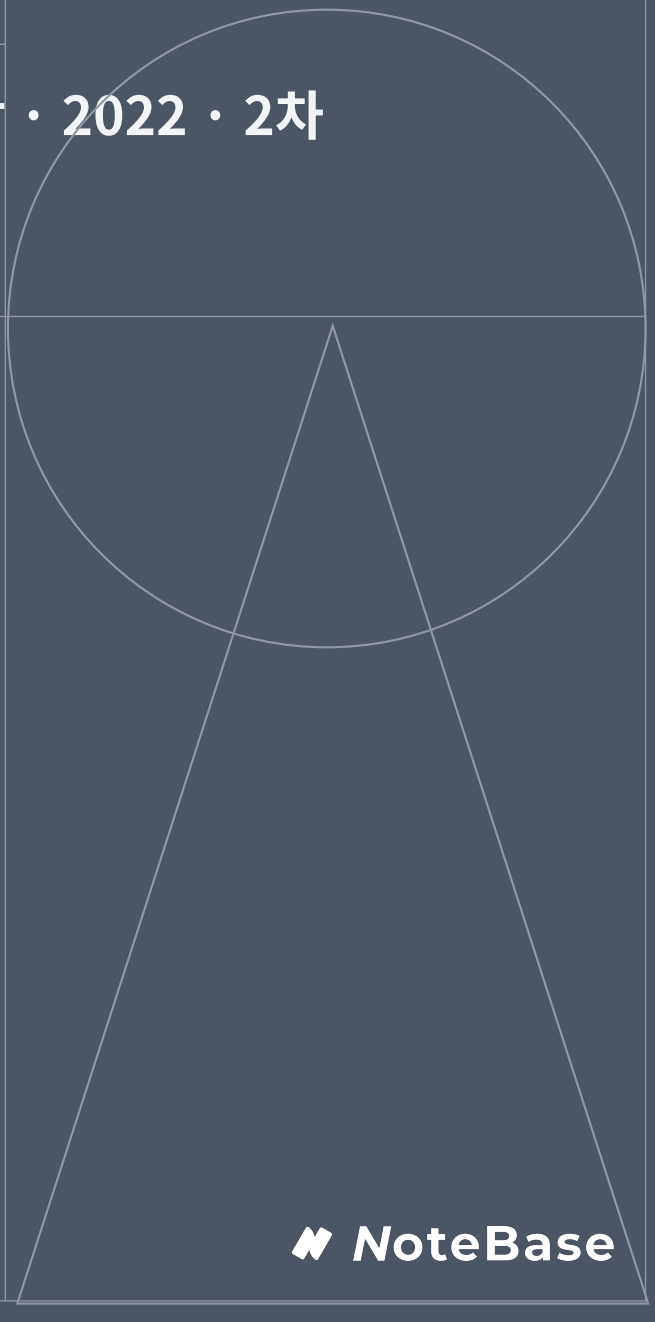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2 · 2차

문 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④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고,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전기오류 수정의 회계처리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의 변경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원칙이나 처리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경험의 축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 추정을 고치는 것이다.
전기오류의 수정은 과거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을 바로잡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정보를 소급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새로운 거래나 사건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회계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 달라진 데 따른 적용 차이이다. 따라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O. 회계추정은 상황 변화, 새로운 정보, 경험 축적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추정치를 다시 보는 것이므로 오류수정이 아니다.
3번: O.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당기 초에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정보도 그 시점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재작성하는 처리와 연결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고"이다. 전기오류 수정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정보를 소급재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이른 표시기간 초의 이익잉여금 등 기초잔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전기오류를 회계추정 변경처럼 당기손익 처리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전진적 처리와 소급재작성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오류수정은 소급, 추정변경은 전진"이라는 기준이 흔들리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이 정책 변경, 추정 변경, 오류수정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류한다. 그다음 회계처리가 소급인지 전진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오류수정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쓰면 바로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책은 원칙 변경, 추정은 금액 수정, 오류는 소급재작성이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의 20×1년 상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매출총이익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 4월 8일: 상품 ₩900,000을 현금 매입
◯ 7월 7일: 원가 ₩700,000(판매가 ₩910,000)인 상품을 시용 판매
◯ 12월 8일: 고객으로부터 시용 상품(판매가 ₩650,000)에 대해 구매 의사표시 받음

① 매출총이익: ₩150,000, 기말상품재고액: ₩350,000
② 매출총이익: ₩150,000, 기말상품재고액: ₩500,000
③ 매출총이익: ₩210,000, 기말상품재고액: ₩350,000
④ 매출총이익: ₩210,000, 기말상품재고액: ₩5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용판매의 수익 인식 시점과 부분 구매 의사표시가 있을 때의 매출원가 안분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상품재고액 100,000원, 4월 8일 매입 900,000원, 7월 7일 시용판매 상품 원가 700,000원·판매가 910,000원, 12월 8일 구매 의사표시된 시용상품 판매가 6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1년 매출총이익과 기말상품재고액이다.
주의할 조건: 시용판매는 고객의 구매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확정매출이 아니므로, 12월 8일에 승인된 부분만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부분 승인된 시용상품의 매출원가는 판매가 비율로 안분한다.
인식할 매출원가 = 700,000 × (650,000)/(910,000) = 500,0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7월 7일의 시용판매 전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12월 8일에 판매가 6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7월 7일 시용판매는 구매 의사표시 전까지 매출이 아니므로 연도 중 즉시 매출총이익 210,000원을 인식하지 않는다.
2. 12월 8일 구매 의사표시가 있는 부분의 매출은 650,000원이고,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500,000원이다.
3.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650,000원 - 500,000원 = 150,000원이다.
4. 기말상품재고액은 기초재고 100,000원 + 당기매입 900,000원 - 인식된 매출원가 500,000원 = 50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매출총이익 150,000원은 맞지만 기말상품재고액 350,000원은 틀리다. 시용판매 중 구매 의사표시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재고이므로 기말상품재고액은 500,000원이 된다. 틀린 표현은 "기말상품재고액 35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기말상품재고액 500,000원"이다.
2번: O. 12월 8일에 확정된 매출 650,000원과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00,000원을 인식하면 매출총이익은 150,000원이고, 기말상품재고액은 500,000원이 된다.
3번: X. "매출총이익 210,000원"은 7월 7일 시용판매 전체를 확정매출로 본 오류이다. 시용판매는 구매 의사표시 전까지 매출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매출총이익 150,000원"이다. 또한 기말상품재고액도 35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이다.
4번: X. 기말상품재고액 500,000원은 맞지만 "매출총이익 210,000원"이 틀리다. 210,000원은 시용판매 전체의 이익을 바로 인식한 값이고, 올바르게는 12월 8일에 승인된 부분만 반영한 1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시용판매를 일반 외상판매처럼 처리하여 인도 시점에 바로 매출을 잡으면 210,000원을 선택하게 된다. 또 구매 의사표시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놓치면 승인되지 않은 부분의 원가를 재고에서 빼 버려 기말상품재고액을 과소계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용판매가 나오면 먼저 구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확정된 판매가 부분만 매출과 매출원가로 안분한다. 마지막에 인식된 매출원가만큼만 재고를 차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시용판매는 승인 전 재고, 승인된 부분만 매출이며 부분 승인 시 원가는 판매가 비율로 안분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12월 초 회계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은?

구분	거래 내역
12월 초	○ 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 ₩500)를 액면가로 발행하고 현금 납입받다.
12월 중	○ 일회성광고를 하고, ₩150,000을 현금 지급하다. ○ 회계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1,200,000을 현금 수취하다. ○ 회계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500,000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 사무실용 비품을 ₩100,000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12월 말	○ 당월분 전기사용료 ₩8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2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직원급여 ₩3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 ₩2,500을 인식하다.

① ₩867,500

② ₩870,000

③ ₩967,500

④ ₩97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고, 자본거래와 자산취득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수익: 현금으로 받은 회계자문용역대 1,200,000원, 다음 달 받기로 한 회계교육용역대 500,000원
- 비용: 광고선전비 150,000원, 전기사용료 80,000원, 임차료 200,000원, 급여 300,000원, 감가상각비 2,500원
- 주의할 조건: 주식 발행은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이 아니고, 비품 100,000원 취득은 자산 인식이므로 즉시 비용이 아니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사용할 공식은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거래들을 수익, 비용, 자본거래, 자산취득으로 분류한 뒤 한 달 동안 인식되는 손익만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총수익은 1,200,000원 + 500,000원 = 1,700,000원이다.
2. 총비용은 15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2,500원 = 732,500원이다.
3. 주식 발행대금 500,000원은 자본금 증가이고, 비품 100,000원은 자산 취득이므로 당기비용에 넣지 않는다.
4.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700,000원 - 732,500원 = 967,5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867,500원은 비품 100,000원을 취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2,500원까지 추가로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비품 취득액 전체를 당기비용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비품 100,000원은 자산이고 당월에는 감가상각비 2,500원만 비용이다.
2번 X: 870,000원은 비품 1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는 누락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비품 취득액을 비용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비품 취득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3번 O: 총수익 1,700,000원에서 총비용 732,500원을 차감하면 967,500원이므로 옳다.
4번 X: 970,000원은 감가상각비 2,500원을 누락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 2,500원을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은 967,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주식 발행대금을 수익으로 보거나 비품 취득액 100,000원 전체를 즉시 비용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자본거래와 자산취득을 비용·수익과 섞어 계산하게 만드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래를 보면 먼저 수익, 비용, 자본거래,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그다음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과 당월 비용을 반영하고, 자산은 취득액이 아니라 당기 소모분이나 감가상각비만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만 뺀 값이며, 주식 발행은 자본거래이고 비품 취득은 자산취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4.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된다.

②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③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며,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시적차이, 세무기준액,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재평가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면 가산할 일시적차이, 줄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세무기준액은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결제될 때 세법상 어떤 금액이 과세되거나 차감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가 미래 과세소득과 상계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며, 이후 그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감액분을 재인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다. 그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면 가산할 일시적차이, 감소시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한다.
2번: O.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유입되는 경제적효익 중 세법상 차감될 금액이다. 회수되는 경제적효익이 과세되지 않으면 세무상 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3번: O.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핵심 요건은 사용 가능한 미래 과세소득의 존재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는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전에 감액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다시 인식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은 한 번 감액하면 끝난다고 외우면 4번에 걸린다. 인식 여부와 이후 재평가는 모두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선지는 먼저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의 정의가 맞는지 본다. 그다음 이연법인세자산이 나오면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그 판단이 이후 바뀌면 재인식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이 보이면 인식하고, 안 보이면 감액하며, 다시 보이면 재인식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600단위이다. (주)한국은 매년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200단위를 단위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 특별주문 200단위 모두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추가 설비 증설은 없으며, 이를 제외한 시장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매출액(단위당 판매가격 ₩200)	₩100,000
변동원가	₩60,000
공헌이익	₩40,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20,000
영업이익	₩10,000

① ₩ 2,000
② ₩ 4,000
③ ₩ 12,000
④ ₩ 36,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업도가 제한된 상태에서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공헌이익과 기회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정상판매 500단위, 최대생산능력 600단위이므로 유휴능력은 100단위이다.
단위당 정상판매가격은 200원, 단위당 특별주문가격은 180원이다.
500단위의 변동원가가 60,000원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원이다.
특별주문 200단위를 전부 수락하려면 100단위는 유휴능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단위는 정상판매를 포기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증가 영업이익은 특별주문 공헌이익에서 포기한 정상판매의 공헌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증가 영업이익 = (180-120)× 200 - (200-120)×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특별주문 200단위 중 100단위는 유휴능력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100단위는 정상판매를 대체하므로 포기한 공헌이익이 기회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0 ÷ 500 = 120원이다.
2. 특별주문 200단위의 공헌이익은 (180 - 120) × 200 = 12,000원이다.
3. 최대생산능력 600단위에서 기존 판매 500단위를 빼면 유휴능력은 100단위이다.
4. 특별주문 전량을 수락하면 100단위는 정상판매를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 공헌이익은 (200 - 120) × 100 = 8,000원이다.
5. 따라서 증가 영업이익은 12,000원 - 8,000원 = 4,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000원은 정상판매 포기분을 단위당 영업이익 20원으로 잘못 차감할 때 나오는 값이다. 특별주문 판단에서는 배부된 고정원가가 아니라 포기한 정상판매의 공헌이익 8,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포기분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포기분은 정상판매의 공헌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한다.
2번 O: 특별주문 공헌이익 12,000원에서 정상판매 포기 공헌이익 8,000원을 차감하면 4,000원이므로 옳다.
3번 X: 12,000원은 특별주문 자체의 공헌이익만 본 값이다. 생산능력이 100단위 부족하므로 정상판매 100단위의 공헌이익 8,000원을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유휴능력 제약을 무시한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부족한 능력만큼 포기 공헌이익을 차감한다고 본다.
4번 X: 36,000원은 특별주문 매출액만 본 값이다. 변동원가 24,000원과 포기 공헌이익 8,000원을 반영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매출액이 곧 이익이라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증가 이익은 관련 수익에서 관련 원가와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특별주문 문제에서 최대생산능력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3번처럼 특별주문 공헌이익 12,000원만 정답으로 고르기 쉽다. 또 배부된 고정원가나 기존 단위당 영업이익을 끌어오면 1번처럼 관련 없는 수치를 차감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는 먼저 유휴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유휴능력 안의 물량은 특별주문 공헌이익만 보며, 초과 물량은 기존 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업도 여유가 없으면 특별주문 증분이익은 특별주문 공헌이익에서 포기한 정상판매 공헌이익을 차감한 값이다.

NoteBase

문 6. 「국가회계예규」의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 · 부채, 순자산, 수익 ·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 · 부채, 순자산, 수익 · 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재원조달”과 “기타재원이전”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④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 통합 범위, 내부거래 제거 대상, 주석 공시, 국세수익의 표시 위치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중앙관서 재무제표 = 한 중앙관서 소관 국가회계실체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재무제표이다.
국가 재무제표 =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다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 기준으로 통합한 재무제표이다.

핵심 구분

통합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또한 적정공시가 필요하면 일부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은 본문이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된다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침 4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한다. 선지의 서술이 그대로 맞다.

② O
지침 6은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지는 공시방법 결정의 취지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③ O
지침 10은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재원조달"과 "기타재원이전"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고 규정한다. 내부거래 제거의 설명이 맞다.

④ X
지침 16은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을 국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고 규정한다. 선지는 이를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수익이라고 바꾸어 썼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수익'"
올바른 표현: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

오답 포인트

④는 국가 재정운영표의 표시 구분을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비용 성격의 묶음이고, 국세수익은 비교환수익 등에 들어간다는 구조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합 지침 문제는 먼저 통합 대상, 내부거래 제거 대상, 본문 대 주석, 국가 재정운영표에서의 표시 위치를 나누어 본다. 특히 표시 위치를 묻는 선지는 항목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통합은 합산 후 내부거래 제거이고, 국세수익은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3,400단위를 판매하였다. 20×1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위당 판매가격 ₩15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8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4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5
총고정제조간접원가 ₩240,000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80,000

①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의 차이는 ₩36,000이다.
②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의 차이는 ₩55,200이다.
③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37,200이다.
④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28,8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의 이익 차이와 기말재고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량은 4,000단위, 판매량은 3,400단위이므로 기말재고는 6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 30원 + 직접노무 18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14원 = 62원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 240,000원 ÷ 4,000단위 = 60원이다.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22원이고,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30원만 재고원가에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다.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비초변동 제조원가만큼 발생한다.
기말재고액은 해당 원가계산에서 재고에 포함하는 단위당 원가 × 기말재고수량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네 선택지가 모두 재고에 포함되는 원가 범위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 차이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수량은 4,000단위 - 3,400단위 = 600단위이다.
2.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600단위 × 60원 = 36,000원이다.
3.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액은 600단위 × 62원 = 37,200원이다.
4. 초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액은 600단위 × 30원 = 18,000원이다.
5.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600단위 × 60 + 18 + 14원 = 55,2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60원이 재고에 포함되지만 변동원가계산은 이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말재고 600단위에 이연된 금액은 36,000원이므로 옳다.
2번 O: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에 포함하므로, 전부원가계산과의 차이는 단위당 18 + 14 + 60 = 92원이다. 기말재고 600단위 기준 차이는 55,200원이므로 옳다.
3번 O: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에는 직접재료, 직접노무, 변동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600단위 × 62원 = 37,200원이므로 옳다.
4번 X: 초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에는 직접재료원가 30원만 포함된다.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600단위 × 30원 = 18,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28,80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18,000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초변동원가계산에서 어떤 원가를 재고에 포함하는지를 변동원가계산과 혼동하면 4번처럼 틀린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에 남기고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도 당기비용으로 본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가계산 비교 문제는 먼저 각 방법별로 재고에 포함되는 원가 범위를 확정한 뒤, 기말재고수량에 그 차이를 곱해 이익 차이와 재고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 = 변동제조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원가 = 변동제조원가만, 초변동원가 =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준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 공사원가가 ₩300,000 발생하였고,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는 ₩900,000이다. 20×1년 공사대금으로 ₩350,000을 청구하였다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미청구공사) 금액은? (단, (주)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① ₩110,000

② ₩150,000

③ ₩200,000

④ ₩5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으로 계산한 뒤 누적수익과 청구금액의 차이로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계약금액 2,000,000원, 당기 발생원가 300,000원, 완성까지 추가소요원가 900,000원, 당기 청구액 350,000원.
구해야 할 값: 20×1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
주의할 조건: 건설용역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므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계약자산은 인식수익 누계액이 청구금액 누계액보다 큰 부분이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이므로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총예상원가)이다.
계약자산은 누적인식수익 - 누적청구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진행률을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한다고 주어졌고, 미청구공사는 수행한 만큼 인식한 수익이 청구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생기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총예상원가는 300,000원 + 900,000원 = 1,200,000원이다.
2. 진행률은 $300,000/1,200,000 = 0.25$이므로 25%이다.
3. 누적인식수익은 2,000,000원 × 25% = 500,000원이다.
4.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0원 - 350,000원 = 15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1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계약자산을 110,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진행률로 계산한 누적인식수익 500,000원에서 청구액 350,000원을 차감한 150,000원이다.
② O: 진행률 25%에 따른 누적인식수익이 500,000원이므로 청구액 350,000원을 차감한 계약자산은 150,000원이다.
③ X: 20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미청구공사를 200,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50,000원이다. 이 값은 진행률이나 청구액을 잘못 대입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④ X: 500,000원은 누적인식수익 자체일 뿐 계약자산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인식수익과 계약자산을 동일시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500,000원에서 이미 청구한 350,000원을 차감한 1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를 '누적인식수익'이나 '발생원가'와 혼동하는 데 있다. 특히 ④처럼 인식수익 500,000원을 그대로 고르거나, 청구금액 차감을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는 장기공사 문제는 총예상원가로 진행률을 먼저 구하고, 계약금액에 곱해 누적인식수익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청구누계액을 차감해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를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미청구공사는 누적인식수익이 누적청구액보다 클 때 생기는 차액이다.

NoteBase

문 9.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

②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③ 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④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범위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이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재무제표의 발행을 경영진이 승인한 날이지, 주주가 나중에 최종 승인한 날이 아니다.
보고기간 후에 선언된 배당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의무가 아니므로 그 시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 재무제표를 발행한 뒤 주주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 승인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2번: O. 별도의 감독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 된다.
3번: O.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의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먼저 공표했더라도 그 이후 발행승인일까지의 사건은 여전히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한다.
4번: O.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 의무가 아니므로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을 주주총회 승인일과 혼동하면 1번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은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와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했는지를 구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고기간후사건 문제는 먼저 기간의 끝점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로 잡고, 그 승인 주체가 경영진인지 주주인지 구분한다. 이어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새로 생긴 사건인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부터 발행승인일까지이고, 주주 승인일은 기준일이 아니며, 사후 배당선언은 보고기간말 부채가 아니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과 20×2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3년 이익배당을 위해 20×4년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에 대한 5%의 배당률과 ₩1,0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되는 배당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 수 3,500주
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 수 1,500주 (연 배당율 5%, 누적적, 완전참가적)

① 보통주 배당금: ₩355,000, 우선주 배당금: ₩645,000

② 보통주 배당금: ₩405,000, 우선주 배당금: ₩595,000

③ 보통주 배당금: ₩595,000, 우선주 배당금: ₩405,000

④ 보통주 배당금: ₩645,000, 우선주 배당금: ₩35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의 현금배당 배분 순서를 적용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보통주: 액면 1,000원, 3,500주
우선주: 액면 1,000원, 1,500주, 연 5%, 누적적, 완전참가적
20x1년과 20x2년은 무배당이므로 우선주의 미지급 배당이 2년 누적된다.
20x3년 이익배당으로 총 현금배당 1,000,000원을 배분한다.

사용할 공식

우선주의 연 우선배당액은 1,500주 × 1,000원 × 5\% = 75,000원이다.
보통주의 당기 5% 배당액은 3,500주 × 1,000원 × 5\% = 175,000원이다.
누적적 우선주는 과거 미지급 우선배당을 먼저 받고, 완전참가적 우선주는 동률 배당 후 남은 금액을 총 액면금액 비율로 추가 배분받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우선주의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누적 우선배당은 75,000원 × 3년 = 225,000원이다.
2. 보통주의 당기 5% 배당은 175,000원이다.
3. 여기까지 배분하면 225,000원 + 175,000원 = 400,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은 600,000원이다.
4. 완전참가적 우선주는 남은 600,000원을 총 액면금액 비율인 $3,500,000 : 1,500,000 = 7 : 3$으로 나눈다.
5. 추가 배당은 보통주 420,000원, 우선주 180,000원이다.
6. 따라서 최종 배당금은 보통주 595,000원, 우선주 405,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보통주 355,000원, 우선주 645,000원은 남은 600,000원을 3:7로 거꾸로 배분한 값에 가깝다. 틀린 금액 배분은 보통주 355,000원, 우선주 64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보통주 595,000원, 우선주 405,000원이다.
2번 X: 보통주 405,000원, 우선주 595,000원은 우선주의 누적배당과 참가배당 순서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틀린 금액 배분은 보통주 405,000원, 우선주 59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보통주 595,000원, 우선주 405,000원이다.
3번 O: 우선주 누적배당 225,000원을 먼저 배분하고 보통주 5% 배당 175,000원을 준 뒤, 잔액 600,000원을 7:3으로 나누면 보통주 595,000원, 우선주 405,000원이 된다.
4번 X: 보통주 645,000원, 우선주 355,000원은 우선주의 누적적 권리를 과소계산하거나 잔액 배분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틀린 금액 배분은 보통주 645,000원, 우선주 35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보통주 595,000원, 우선주 40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누적적 우선주는 과거 미지급 배당을 먼저 회수하고, 완전참가적 우선주는 동률 배당 뒤 남은 금액에도 참가한다는 두 단계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잔액 600,000원을 총 액면금액 비율 7:3이 아니라 3:7로 뒤집으면 1번처럼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참가적 우선주 문제는 미지급 누적배당 계산, 당기 동률 배당 계산, 잔여액의 참가비율 배분 순서로 판단한다. 잔여액 배분 비율이 주식 수 기준인지 총 액면금액 기준인지까지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적은 과거분을 먼저 채우고, 완전참가적은 동률 배당 후 잔여액도 함께 나눈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800,000, 부채총액 ₩500,000이다. 다음 거래 내역과 관련 결산조정 사항을 반영한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일자	거래 내역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000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인식
8월 1일	1년치 건물임대료 ₩240,000 현금 수취하고 전액 수익 인식

① 자산총액: ₩560,000, 부채총액: ₩380,000

② 자산총액: ₩920,000, 부채총액: ₩500,000

③ 자산총액: ₩940,000, 부채총액: ₩640,000

④ 자산총액: ₩1,040,000, 부채총액: ₩62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간 배분이 필요한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결산수정이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 자산총액은 800,000원이다.
- 기초 부채총액은 500,000원이다.
- 3월 1일 거래는 1년치 화재보험료 120,000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 8월 1일 거래는 1년치 건물임대료 240,000원을 수취하고 전액 수익으로 처리한 것이다.

구해야 할 값
- 결산수정 후 기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다.

주의할 조건
- 기간은 월할 계산이므로 보험은 10개월 경과, 2개월 미경과이다.
- 임대료는 5개월 실현, 7개월 미실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간배분액은 연간금액 × (해당월수)/(12)로 계산한다.
보험의 선급분은 $120{,}000 \times \frac{2}{12} = 20{,}000$원이고, 임대료의 선수분은 $240{,}000 \times \frac{7}{12} = 140{,}000$원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거래 모두 1년치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나, 기말에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비용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거래 직후 자산총액은 800,000원 - 120,000원 + 240,000원 = 920,000원이다.
2. 보험료는 12개월 중 10개월이 경과했으므로 2개월분 20,000원을 선급보험료로 자산에 되돌린다.
3. 임대료는 12개월 중 5개월만 실현되었으므로 7개월분 140,000원을 선수임대료로 부채에 계상한다.
4. 따라서 기말 자산총액은 920,000원 + 20,000원 = 940,000원이고, 기말 부채총액은 500,000원 + 140,000원 = 64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산총액 560,000원과 부채총액 380,000원은 현금 지급·수취와 결산수정을 모두 반영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현금 거래만 반영해도 자산총액은 이미 920,000원이며, 부채는 결산수정으로 140,000원 증가하여 640,000원이 된다. 올바른 금액은 자산총액 940,000원, 부채총액 640,000원이다.
② X: 자산총액 920,000원과 부채총액 500,000원은 거래 직후 금액일 뿐 결산수정을 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선급보험료 20,000원을 자산에 더하고 선수임대료 140,000원을 부채에 더해야 하므로 자산총액 940,000원, 부채총액 640,000원이다.
③ O: 보험료의 미경과분 2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대료의 미실현분 14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면 자산총액 940,000원과 부채총액 640,000원이 되어 정답에 해당한다.
④ X: 자산총액 1,040,000원은 보험료 120,000원 전액을 선급자산으로 되돌린 것과 같은 오류이다. 3월 1일 지급 보험료는 10개월이 이미 비용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남는 자산은 2개월분 20,000원뿐이다. 부채총액 620,000원도 선수임대료 140,000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자산총액 940,000원, 부채총액 64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보험료 지급과 임대료 수취를 현금거래로만 보고 끝내면 ②처럼 거래 직후 금액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또 1년치 금액 전체를 선급분이나 선수분으로 착각하면 ④처럼 기간 배분이 무너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경과 문제는 먼저 현금거래를 반영한 뒤, 기말 현재 남아 있는 미경과비용과 미실현수익만 따로 떼어 자산과 부채로 옮기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선급비용은 남은 기간을 자산으로, 선수수익은 남은 기간을 부채로 본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고,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였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70,000, 예정배부액은 ₩60,000이고, 기말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할 때,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처리에 비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 56,000	₩ 70,000	₩ 154,000

① ₩4,500 감소

② ₩4,500 증가

③ ₩5,500 감소

④ ₩5,5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족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매출원가조정법과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으로 처리할 때 당기순이익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실제 제조간접원가 70,000원, 예정배부액 60,000원, 기말재공품 56,000원, 기말제품 70,000원, 매출원가 154,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매출원가조정법이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 비해 당기순이익에 주는 추가 영향이다.
주의할 조건은 제조간접원가가 부족배부되었으므로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배부차이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총원가기준 비례배분액 = 배부차이 × (각 계정잔액)/(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배부차이의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매출원가조정법은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례배분법은 재공품·제품·매출원가에 나누어 반영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구하면 $70{,}000 - 60{,}000 = 10{,}000$으로 10,000원 부족배부이다.
2. 총 배분기준액은 $56{,}000 + 70{,}000 + 154{,}000 = 280{,}000$이다.
3.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00 \times \frac{154{,}000}{280{,}000} = 5{,}500$원이다.
4. 매출원가조정법은 10,000원 전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5. 따라서 매출원가조정법은 비례배분법보다 매출원가를 4,500원 더 크게 하고,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4,500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매출원가조정법은 부족배부액 10,000원을 전액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비례배분법은 그중 5,500원만 매출원가로 가고 나머지 4,500원은 재공품 2,000원과 제품 2,500원으로 남는다. 따라서 매출원가조정법을 쓰면 비례배분법보다 당기순이익이 4,500원 감소한다.
② X: 금액 4,500원은 맞지만 방향이 틀렸다. 부족배부를 전액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비용이 더 커지므로 순이익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틀린 표현은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4,500 감소'이다.
③ X: 5,500원은 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이지 두 방법의 차이가 아니다. 비교해야 할 값은 10,000원과 5,500원의 차이인 4,500원이다. 틀린 표현은 '5,500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4,500 감소'이다.
④ X: 5,500원은 차이 금액이 아니고 방향도 반대이다. 매출원가조정법은 부족배부액 전액을 비용화하므로 순이익을 늘리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5,5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4,500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배부차이 문제에서는 비례배분법의 매출원가 배분액 5,500원을 바로 두 방법의 차이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부족배부인지 초과배부인지 부호를 거꾸로 잡으면 순이익 영향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부차이 비교 문제는 먼저 부족배부·초과배부를 판정하고, 다음으로 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로 가는 몫만 계산한 뒤, 전액 매출원가 처리액과의 차이를 당기순이익 영향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부족배부는 매출원가조정법에서 전액 비용화되고, 비례배분법과의 순이익 차이는 재고로 남는 몫만큼 발생한다.

NoteBase

문 13.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②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③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

④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 사이에서 재분류할 때 측정기준과 누적 기타포괄손익, 유효이자율, 기대신용손실의 처리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손실충당금을 총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측정 범주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이자수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기타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하는 범주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누적 기타포괄손익이 남지 않는 범주이다.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사이의 재분류에서는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면 자산은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재분류 전 자본에 누적되어 있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한다.
②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출발점이 된다.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재분류일 공정가치에 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산이 처음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것처럼 처리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는 표현이다.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할 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은 조정되지 않는다.
④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상각후원가 측정을 진행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이 모두 유효이자율법과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흐리게 만든 선지이다. 수험생은 공정가치 범주로 옮기면 이자율이나 손상측정도 함께 다시 잡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두 범주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유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분류 문제는 먼저 도착 범주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중 무엇인지 본다. 그다음 누적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지, 자본에서 제거되어 장부금액에 조정되는지, 아예 관련이 없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사이에서는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은 이자율·손상 유지, 기타포괄손익 누계 처리만 달라진다.

NoteBase

문 14.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③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하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④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며,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원칙과 원재료 감액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금액에서 완성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추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은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고,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
원재료와 소모품은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면 보통 감액하지 않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완성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는 감액 대상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은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금액에 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한다. 확정판매계약이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보유한 재고자산은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순실현가능가치를 판단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완성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O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 감액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순실현가능가치 상승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평가손실을 환입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앞부분의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만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 선지이다. 그러나 뒤에 "완성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라고 조건이 바뀌면 예외가 아니라 감액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문제는 먼저 보유 목적과 계약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리는지 판단한다. 완성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넘지 않으면 원재료는 보통 감액하지 않고, 넘으면 원재료도 감액 대상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완성품이 원가 이상이면 원재료 유지, 완성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넘으면 원재료도 감액이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A,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 ₩5,000, 사용가치 ₩4,000, 손상차손 인식액 ₩6,000이다. 20×1년 초 기계장치 취득시의 잔존가치 'A'는? (단, 잔존가치의 변동은 없다)

① ₩1,000

② ₩2,000

③ ₩3,000

④ ₩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상차손으로부터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을 역산한 뒤, 연수합계법의 첫해 감가상각비를 이용해 잔존가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20,000원, 내용연수 3년,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 20×1년 말 순공정가치 5,000원, 사용가치 4,000원, 손상차손 6,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취득 시점의 잔존가치 A이다.
주의할 조건: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과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의 차이이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용할 공식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 =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연수합계법 첫해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3/6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연말 손상차손 금액과 회수가능액 판단 자료를 함께 주었으므로 먼저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고, 취득연도 감가상각비와 연결하면 잔존가치를 역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5,000원과 사용가치 4,000원 중 큰 금액인 5,000원이다.
2. 손상차손이 6,000원이므로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은 11,000원이다.
3. 따라서 20×1년 감가상각비는 20,000원 - 11,000원 = 9,000원이다.
4. 내용연수 3년의 연수합계는 6이므로 첫해 감가상각비는 (20,000원 - A) × 3/6 = (20,000원 - A) / 2 이다.
5. 이를 9,000원과 같게 두면 (20,000원 - A) / 2 = 9,000원, 따라서 20,000원 - A = 18,000원, A = 2,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잔존가치는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다. 1,000원은 첫해 감가상각비 9,500원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므로 손상차손에서 역산한 장부금액 11,000원을 놓친 계산이다.
2번 O: 회수가능액을 5,000원으로 보고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을 11,000원으로 역산하면 첫해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다. 이를 연수합계법 식에 대입하면 잔존가치는 2,000원이다.
3번 X: 잔존가치는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다. 3,000원은 회수가능액을 4,000원으로 잘못 보고 장부금액을 10,000원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4번 X: 잔존가치는 4,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다. 4,000원은 연수합계법의 분자를 첫해 3이 아니라 둘째 해 2로 잘못 적용하거나 손상차손 계산과 감가상각 계산을 섞어 판단할 때 나오는 값이다.

오답 포인트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라는 점을 놓치면 3번으로 흔들린다. 또한 손상차손으로 연말 장부금액을 먼저 복원하지 않고 바로 잔존가치를 잡으면 1번이나 4번 같은 감가상각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 문제가 감가상각과 함께 나오면 회수가능액 판단 →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 역산 →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 → 감가상각식에 대입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은 회수가능액으로 역산하고, 연수합계법 첫해는 감가상각대상액에 3/6을 곱한다.

NoteBase

문 16.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XYZ'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00,000이다. 계약서상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 ₩40,000, 20×2년 6월 1일 ₩60,000을 청구할 수 있다. 'XYZ'수익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해당될 경우, A 부처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0이다.

②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40,000이다.

③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5,000이다.

④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60,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환수익은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는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계약기간은 20X1년 10월 1일부터 20X2년 9월 30일까지 12개월이다.
총계약금액은 100,000원이다.
청구 가능 시점은 20X1년 12월 1일 40,000원, 20X2년 6월 1일 6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교환수익은 계약기간 동안의 수행 정도에 따라 월할 인식하므로 20X1년 인식액은 $100,000 \times \frac{3}{12} = 25,000$, 20X2년 인식액은 $100,000 \times \frac{9}{12} = 75,000$이다.
비교환수익은 월할하지 않고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그 시점에 인식하므로 20X1년 40,000원, 20X2년 60,000원을 각각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교환수익이면 계약기간 12개월 중 20X1년은 3개월, 20X2년은 9개월이므로 기간배분한다.
2. 따라서 교환수익은 20X1년 25,000원, 20X2년 75,000원이다.
3. 비교환수익이면 기간배분이 아니라 청구권 발생 시점을 보므로 20X1년 12월 1일 40,000원, 20X2년 6월 1일 60,000원을 각 연도 수익으로 본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20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0원'이 틀렸다. 교환수익은 계약기간에 따라 인식하므로 20X1년 3개월분 25,000원을 인식한다.
2번 X: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40,000원'이 틀렸다. 교환수익의 20X2년 몫은 9개월분 75,000원이다.
3번 X: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5,000원'이 틀렸다. 비교환수익은 월할하지 않고 청구권 발생액을 인식하므로 20X1년 수익은 40,000원이다.
4번 O: 비교환수익은 20X2년 6월 1일 청구권이 발생한 60,000원을 20X2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교환수익의 기간배분 기준과 비교환수익의 청구권 발생 기준을 섞으면 틀린다. 계약서의 청구일을 교환수익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비교환수익까지 월할 계산하는 실수가 대표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익 유형이 교환수익인지 비교환수익인지부터 구분한다. 교환수익이면 수행기간에 따라 안분하고, 비교환수익이면 청구권이 언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만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교환수익은 기간 안분, 비교환수익은 청구권 발생 시점 인식이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의 조건으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1년 초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발행시 인식한 신주인수권대가가 ₩69,430일 경우, 20×1년 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은?

◯ 액면가액: ₩5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2%(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만기 상환할증금: ₩40,000

① ₩433,627
② ₩453,876
③ ₩463,627
④ ₩5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요소 최초 인식금액을 구한 뒤 유효이자율법으로 20X1년 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액면가액 500,000원, 표시이자율 연 2%, 만기 3년, 시장이자율 연 10%, 만기 상환할증금 40,000원, 신주인수권대가 69,43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 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요소 장부금액이다.
주의할 조건은 문제에서 신주인수권대가를 이미 69,430원으로 주었으므로 최초 사채 장부금액은 총 발행대금 5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사채요소 최초 인식액은 $500{,}000 - 69{,}430 = 430{,}570$원이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CV_1 = CV_0 + (CV_0 \times 10\%) - C$로 계산한다.
여기서 CV_0는 기초 장부금액, C는 연말 현금지급이자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자본요소를 분리한 뒤 남는 사채요소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사채 장부금액은 500,000 − 69,430 = 430,570원이다.
2. 20X1년 이자비용은 430,570 × 10% = 43,057원이다.
3. 연말 현금지급이자는 500,000 × 2% = 10,000원이다.
4. 따라서 20X1년 말 장부금액은 430,570 + 43,057 − 10,000 = 463,627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433,627원은 만기 상환할증금 40,000원을 올해 말에 바로 차감한 것과 같은 값이다. 만기 상환할증금은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반영되며 20X1년 말 장부금액을 즉시 줄이는 항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463,627원이다.
2번 X: 453,876원은 유효이자율법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초 장부금액 430,570원에 이자비용 43,057원을 더하고 실제 지급이자 1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463,627원이다.
3번 O: 사채요소의 기초 장부금액 430,570원에 유효이자비용 43,057원을 가산하고 표시이자 지급액 10,000원을 차감하면 463,627원이 된다.
4번 X: 500,000원은 액면가액일 뿐 20X1년 말 장부금액이 아니다. 신주인수권 대가를 분리하지 않은 값이므로 올바르게는 463,627원이다.

오답 포인트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액면가액 전체를 곧바로 사채부채로 보면 틀린다. 문제에서 자본요소 금액을 따로 주면 먼저 총 발행대금에서 차감해 사채요소의 기초 장부금액을 구해야 하고, 만기 상환할증금은 기말에 한꺼번에 빼는 항목이 아니라 유효이자율법 안에서 반영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금융상품 계산형은 총 발행대금에서 자본요소를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 사채요소에 대해서만 $CV_t = CV_{t-1} + I - C$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말 장부금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자본분리 후 사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이다.

NoteBase

문 18.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②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 재부여특성을 고려하고, 사후적으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④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공정가치 측정원칙, 재부여특성, 가득조건 처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주식결제형 거래의 기본 측정원칙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거래를 측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재부여특성은 기존 주식선택권 행사 시 추가 주식선택권을 다시 부여하는 특성으로, 최초 부여한 옵션의 공정가치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가득조건은 공정가치 자체에 넣기보다 가득될 지분상품 수와 용역 인식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일반원칙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대응하는 자본 증가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측정원칙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2번: X. 틀린 부분은 "재부여 특성을 고려하고"이다. 재부여특성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재부여특성은 최초 옵션의 공정가치 추정에서 제외하고, 사후적으로 실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만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3번: O. 거래상대방이 일정 기간 용역을 제공해야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용역을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용과 자본 증가는 그 가득기간 동안 인식된다.
4번: O.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할 때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고,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은 뒤 문장인 "사후적으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가 맞기 때문에 앞 문장도 함께 맞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재부여특성은 최초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기준보상 선지는 먼저 해당 요소가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되는지, 가득수량이나 가득기간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사후 새 부여로 처리되는지를 나누어 보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재부여특성은 최초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후 재부여 옵션은 새 부여로 본다.

NoteBase

문 19. 금융상품: 표시의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 신용상태, 현금흐름이 유사하고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③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의 최초 분류, 부채요소 측정, 조건변경, 만기전환 회계처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부채요소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 채무의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한다.
자본요소는 보유자에게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권리를 주는 부분이다. 전체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액으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전환 가능성 변화만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만기 전환은 만기에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대체하는 거래이다. 최초에 인식한 자본요소는 자본 안에 남고 전환 자체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이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류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되며, 이후 전환 가능성이나 주가 변동만으로 다시 나누어 분류하지 않는다.
2번: X. 틀린 표현은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이다. 부채요소는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전환권이 없는 유사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변경할 수 없다"이다. 발행자는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래 조건보다 추가로 제공한 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O.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요소는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한 자본요소는 다른 자본 항목으로 대체할 수는 있어도 계속 자본으로 유지되며, 만기 전환 자체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전환 가능성의 변화와 실제 계약조건 변경을 같은 것으로 섞으면 틀린다. 또한 부채요소 할인율은 "전환권이 없는 유사 채무"라는 기준을 빼먹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는 먼저 최초 분류가 고정되는지, 부채 할인율에 전환권이 포함되지 않는지, 조건을 바꾸면 추가 대가를 손익으로 보는지, 만기 전환 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는 최초에 부채를 먼저 측정하고 잔액을 자본으로 본다. 전환 가능성 변화는 재분류 사유가 아니고, 만기 전환은 손익 없이 부채를 자본으로 옮기는 처리이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20×1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3년 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1,00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 액면가액: ₩1,0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12%(매년 말 지급)
◯ 발행시 유효이자율: 연 10%
◯ 취득시 사채의 신용은 손상되어 있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	20×1년 말	20×2년 말
12개월	₩ 2,000	₩ 4,000
전체기간	₩ 5,000	₩ 5,000

① 처분손실 ₩13,500
② 처분이익 ₩13,500
③ 처분손실 ₩18,500
④ 처분이익 ₩18,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손실충당금을 함께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50,000원, 액면금액 1,000,000원, 표시이자율 연 12%,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3년이다.
구해야 할 값: 20X3년 초 처분 시 처분손익이다.
주의할 조건: 20X2년 말에는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00원을 반영한 순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총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고,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처분일 순장부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총장부금액 = 전기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수익 - 현금수취이자
순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순장부금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기대신용손실은 별도의 손실충당금으로 차감 표시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20X1년 말 총장부금액은 1,050,000 + 105,000 - 120,000 = 1,035,000원이다.
20X2년 말 총장부금액은 1,035,000 + 103,500 - 120,000 = 1,018,500원이다.
20X2년 말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00원을 반영하므로 순장부금액은 1,018,500 - 5,000 = 1,013,500원이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1,000,000 - 1,013,500 = -13,500원이며, 처분손실 13,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0X2년 말 순장부금액이 1,013,500원이고 이를 1,000,000원에 처분하므로 처분손실 13,500원이 맞다.
② X: '처분이익'이 틀린 표현이다. 같은 금액 13,500원은 이익이 아니라 처분손실이다.
③ X: 18,500원은 총장부금액 1,018,500원과 처분가액 1,000,000원의 차이만 본 값이다. 손실충당금 5,000원 제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틀린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처분손실 13,500원이다.
④ X: '처분이익'과 금액 18,500원 모두 틀리다.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처분손실 13,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총장부금액과 순장부금액을 혼동하는 지점이다. ③처럼 손실충당금 5,000원을 빼지 않으면 18,500원이 나오고, ②와 ④처럼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데도 이익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각후원가 처분문항은 먼저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분 직전 총장부금액을 구한 뒤,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장부금액을 만든 다음 처분가액과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각후원가 처분손익은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NoteBase

문 21.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과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이 있다.

②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며,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보조금의 인식 요건과 수익접근법·자본접근법의 구분, 그리고 비용보전 보조금 및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공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접근법은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 밖의 항목으로 처리하려는 관점이다.
수익접근법은 정부보조금을 관련 원가와 대응시켜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의 보전으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자산 취득과 보조금 수취로 생긴 현금흐름의 큰 변동은 현금흐름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보여 총투자 규모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익접근법과 자본접근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틀린 표현은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과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이다.
올바르게는 자본접근법이 당기손익 밖에서 처리하는 관점이고, 수익접근법이 관련 원가와 대응시켜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② X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의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린 표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③ X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의 수취와 자산 취득은 총투자 규모를 보여 주기 위해 별도로 드러낼 필요가 있지만, 기준이 강조하는 공시 위치는 현금흐름표의 별도 항목이다.
틀린 표현은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차감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현금흐름 변동은 현금흐름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이다.

④ O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과 보조금을 수취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인식한다.
또한 보조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선지의 서술이 맞다.

오답 포인트

정부보조금 문항은 손익 인식 시점과 표시 위치를 서로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된다. 특히 ①은 수익접근법과 자본접근법의 이름을 뒤집어 놓았고, ②는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바꾸었으며, ③은 현금흐름표 공시를 주석 공시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문제는 먼저 "언제 인식하는가"와 "어디에 표시하는가"를 나누어 본다. 비용 보전 보조금이면 관련 비용과 대응되는 당기손익 인식 여부를 확인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이면 재무상태표 표시 방식과 현금흐름표 공시를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본접근법은 손익 밖, 수익접근법은 기간 손익, 과거 비용 보전은 즉시 당기손익, 자산관련 보조금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 별도 표시이다.

문 22.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월할 상각)하면서 다음 조건의 국채를 액면가액으로 의무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액면가액: ₩1,000,000(만기 5년, 만기 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4%(매년 말 지급)
◯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율 10%, 5년 ₩1의 현가계수 0.6
◯ 이자율 10%, 5년 ₩1의 연금현가계수 3.8

①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722,000이다.
② 건물 취득원가는 ₩5,248,000이다.
③ 국채 취득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152,000이다.
④ 국채 취득원가는 ₩848,00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무매입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뒤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건물 표시 취득가액: 5,000,000원
- 국채 액면가액: 1,000,000원
- 연이자: 1,000,000원 × 4% = 40,000원
- 시장이자율: 연 10%
- 5년 현가계수: 0.6
- 5년 연금현가계수: 3.8

사용할 공식

국채 현재가치 = 연이자 × 연금현가계수 + 원금 × 현가계수
건물 취득원가 = 건물 대금 + (국채 액면가액 - 국채 현재가치)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만기보유 목적의 국채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의무매입으로 추가 부담한 차액은 건물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원가로 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국채의 연이자는 40,000원이다.
2. 국채 현재가치는 40,000원 × 3.8 + 1,000,000원 × 0.6 = 152,000원 + 600,000원 = 752,000원이다.
3. 의무매입으로 인한 차액은 1,000,000원 - 752,000원 = 248,000원이다.
4. 건물 취득원가는 5,000,000원 + 248,000원 = 5,248,000원이다.
5.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248,000원 - 50,000원 = 5,198,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198,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5,722,000원"이고, 올바르게는 "건물 취득원가 5,248,000원에서 잔존가치 50,000원을 차감한 5,198,000원"이다.
② O. 건물 취득원가는 5,248,000원이다. 건물 대금 5,000,000원에 의무매입채권 차액 248,000원을 가산하므로 옳다.
③ X. 국채 취득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248,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152,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액면가액 1,000,000원과 현재가치 752,000원의 차이인 248,000원"이다. 152,000원은 이자 현가 합계일 뿐 할인차금이 아니다.
④ X. 국채 취득원가는 752,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848,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연이자 현재가치 152,000원과 원금 현재가치 600,000원을 합한 752,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국채 현재가치와 건물에 가산되는 차액을 뒤바꾸는 데 있다. ③처럼 이자 현가 152,000원만 따로 보거나, ④처럼 액면가액에서 152,000원만 차감하면 현재가치 계산 구조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무매입채권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장이자율로 채권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다음에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구한 뒤, 그 차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최종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해 구한다.

암기 포인트

의무매입채권은 "채권은 현재가치, 액면과의 차액은 자산원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3.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④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 중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능통화의 판단,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의 구분, 비화폐성항목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의 인식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기능통화는 기업의 거래와 현금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화폐성항목은 고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통화금액으로 회수·지급되는 항목이고, 비화폐성항목은 그렇지 않은 항목이다.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그 항목의 평가손익이 인식되는 곳과 같은 곳에 인식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거래, 사건,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통화를 기능통화로 판단한다. 기능통화는 단순한 표시통화가 아니라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라는 점이 핵심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표현이다.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그 안의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번: O.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 인식할 때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최초 인식 단계에서는 보고기간말 환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O.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한다. 보고기간말 환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화폐성 외화항목이다.

오답 포인트

2번처럼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을 한데 묶어 환율변동효과를 무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표현이 대표적 함정이다.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그 항목 손익의 인식처를 그대로 따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문제는 먼저 기능통화 결정, 최초 인식, 보고기간말 환산, 화폐성·비화폐성 구분으로 나눈다. 그다음 비화폐성항목이면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인지 당기손익인지 확인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인식처도 같은 곳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성은 기말환율, 역사적원가 비화폐성은 거래일환율, 비화폐성의 환율효과는 손익 인식처를 따른다.

NoteBase

문 2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유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점별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20×1년 12월 31일	₩550,000
○ 20×2년 7월 1일	₩600,000
○ 20×2년 12월 31일	₩580,000

① 20×1년 건물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해 기타포괄이익이 ₩50,000 증가한다.

②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30,000 증가한다.

③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기타포괄이익이 ₩10,000 증가한다.

④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에서 자가사용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때 대체일까지의 공정가치변동 손익과 대체 후 원가모형·재평가모형의 후속처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20×1년 1월 1일 취득원가는 500,000원이다.
20×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550,000원이다.
20×2년 7월 1일 공정가치는 600,000원이며 이 금액이 유형자산 대체일의 장부금액 출발점이 된다.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580,000원이다.
대체 후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원, 정액법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대체일까지의 공정가치변동손익 = 대체일 공정가치 - 직전 장부금액
20×2년 하반기 감가상각비 = 600,000원 ÷ 10년 × 6/12 = 30,000원
재평가모형의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 = 20×2년 말 재평가금액 580,000원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570,000원 = 10,000원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대체일 공정가치가 IAS 16 적용의 의제원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과 재평가 여부를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1년 말 공정가치변동이익은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이며 이는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다.
2. 20×2년 7월 1일 대체 직전 공정가치변동이익은 600,000원 - 550,000원 = 50,000원이며 역시 당기손익이다.
3. 대체 후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600,000원이고, 20×2년 하반기 감가상각비는 30,000원이다.
4. 원가모형이면 20×2년 순이익 효과는 공정가치변동이익 50,000원 - 감가상각비 30,000원 = 20,000원 증가이다.
5. 재평가모형이면 20×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570,000원이고 재평가금액은 580,000원이므로 재평가잉여금 10,000원이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다.

선지 판단

1번: X. 20×1년 건물의 공정가치변동 50,000원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이므로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틀린 표현은 '기타포괄이익'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이 50,000원 증가한다'이다.
2번: X. 20×2년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20×2년 손익에는 대체일까지 공정가치변동이익 50,000원과 하반기 감가상각비 30,000원이 반영되어 순증가액은 2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30,000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20,000 증가한다'이다.
3번: O. 20×2년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대체 후 하반기 감가상각비 30,000원을 반영한 장부금액은 570,000원이고, 연말 재평가금액 580,000원과의 차이 1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에 인식된다.
4번: X. 재평가모형에서도 20×2년 당기순이익은 공정가치변동이익 5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30,000원을 차감한 20,000원 증가에 그친다. 연말의 10,000원 증가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이익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50,000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은 20,000 증가하고 기타포괄이익은 10,000 증가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재평가처럼 기타포괄이익으로 간다고 착각하면 1번과 4번에서 틀린다. 또한 대체일 600,000원을 유형자산의 출발점으로 잡은 뒤 하반기 감가상각 30,000원을 먼저 차감해야 연말 재평가잉여금 10,000원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대체 문제는 먼저 대체일까지의 공정가치변동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대체일 공정가치를 유형자산 의제원가로 잡은 뒤, 마지막으로 원가모형이면 감가상각만 손익에 반영하고 재평가모형이면 연말 재평가차액을 기타포괄이익으로 돌리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대체 전 변동은 손익, 대체 후 재평가증가분은 OCI로 간다.

NoteBase

문 25. 『국가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며,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현금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상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국가회계실체의 구분, 원가계산기간, 재정운영표 표시사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발생주의 =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핵심 구분

원가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계산하고,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국가회계실체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회계와 사업형회계로 구분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하되, 내부관리 목적이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분할 수 있다.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증거'가 틀렸다.
또한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현금주의의 원칙'이 틀렸다.
틀린 표현: '주관적인 증거', '현금주의의 원칙'
올바른 표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발생주의의 원칙'

② O
국가회계실체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회계와 사업형회계로 구분된다.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선지 전체가 맞다.

③ O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가 집계 대상별로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선지의 후단도 맞다.

④ O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이면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단서도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주관적인 증거'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바꿔 놓은 이중 함정이다. 예산 집행이라는 표현만 보고 현금주의를 연상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예규 문항은 원칙 문구를 그대로 대조하면 된다. 객관성인지 주관성인지, 발생주의인지 현금주의인지, 회계연도 원칙인지 내부관리 예외인지를 나누어 보면 오답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원가계산은 객관적 증거, 발생주의, 회계연도 원칙, 프로그램별 총원가·순원가 표시로 정리된다.

NoteBase